

김영원 교수의 ‘기타모리 가조(北森嘉藏)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 나타난  
신학적 인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소견

시마다 유키 (島田由紀)

백정환 (白正煥) 역

오늘 한국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신 한일신학자 학술회의라는 중요한 학술교류의 장에 초대받아 김영원 교수님의 논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교수님의 ‘기타모리 가조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 드러난 신학적 인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문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사람인 기타모리의 신학의 구조와 그 가능성, 그리고 과제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하게 평가되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생겨난 신학에 진지하게 고견을 내주신 김교수님의 성실한 학술적 자세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김교수님의 훌륭한 논고에 약간의 코멘트를 덧붙임으로써 도리어 제게 더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논문에서 김교수는 기타모리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 헤겔철학에 의거하면서 인간의 실존, 특히 제2차 세계대전기의 일본인의 아픔의 실존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김교수의 이 논의는 해외에서는 주로 몰트만에 의해 그 흐름이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친 기타모리 신학 해석, 즉 ‘전쟁이란 잔혹한 아픔 속에서 인간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어떤 종류의 십자가의 신학’,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개념에 나타난 하나님’ ‘성부수난설’이라는 틀에서 기타모리를 이해하는 큰 흐름에 대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모리 자신도 서구에서 기타모리 신학의 수용과 해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960년대에 앞선 1958년 제5판 서문에서 ‘성부수

난설’로 자신의 신학이 이해되는 것에 대한 경이과 부정을 언급합니다. (기타모리 가조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고단샤, 1996년 11쪽). 김교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 ‘하나님의 진노의 현실화가 인간의 아픔’이라는 기타모리의 논의에 주의를 요구하면서 기타모리 신학을 인간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이라는 ‘성부수난설’의 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기타모리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생기는 인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으로 해결되는 방법’이며, ‘신론이 아니라 인간론’이라고 논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기타모리 신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교수는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내 창자가 그로 인해 아프니’ (일본어역)에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개념을 추출한 기타모리의 논의를 정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모리의 아래와 같은 논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등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픔’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매개하는 계기로서 자기 속에서 지양하고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것이다’ 등의 논의를 지적하며, 기타모리가 언급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대립 가운데 ‘제3의 정립 (定立)’으로서의 ‘하나님의 아픔’은 결국 ‘철저한 성서 주석’에 근거한다기보다 ‘헤겔의 변증법적인 지양의 개념에 의지’하며, ‘교도학파의 불교적인 헤겔철학의 시각을 예레미야 31장 20절에 투사한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헤겔적 구조에서 아픔이나 슬픔을 토대로 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타모리가 도입한 근거로서 당시의 일본 사상에 영향력을 미친 국학 (国学) 전통의 ‘자연스럽게 슬픔을 느끼며 표현한 ‘모노노아와레 (もののあはれ)’를 강조하는 일본적 심미주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교수에 의한 기타모리 신학의 비판적 검토 중심점 중 몇 가지가 이 문맥에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교수는 기타모리가 존재 유비를 비판한 바르트의 신앙 유비를 ‘존재 유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소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존재 유비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즉 기타모리는 바르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속성을 철저히 배제함에 따라 이번에는 유비의 의의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한 기타모리의 논의를 능숙하게 끌어내면서 그러나 기타모리는 ‘아픔이라는 감정’을 매개로 한 ‘인간 주체에 관한 감성적 이해에 기반한 존재 유비’에 함몰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더욱이 김교수는 기타모리가 당시의 고난의 종의 이해에 근

거하여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픔의 상징’ 이 된다고 하며 또한 그 담당자로서 문화적 전통에서 ‘츠라사 (つらさ, 괴로움, 고난, 고통 역주)” 를 인식하는 일본 서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논하며, 기타모리가 ‘일종의 선민주의’ 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

여기서 실존적 체험과 신론에 관해서 기타모리의 주장으로 돌아가 새로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타모리 자신은 아마도 ‘신론’ 전개를 기도 (企画)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픔’ 이라는 개념을 사적 (史的) 예수, 하나님의 본질, 신비주의, 내재성과 초월성, 루터의 ‘숨겨진 하나님’ 등, 교리사의 신론에 관한 중요한 주제와 연결지어 논하는 자세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의 (義)』 『오직 신앙』 이라는 루터 신학의 핵심에 비춰 기타모리는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 이기전에 하나님의 진실한 진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맞서 싸우는 사실이다 … 루터 자신도 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와 같이 먼저 체험했기에 루터에게 있어 하나님의 진노는 ‘빠가 재가 될’ 정도로 극심한 공포의 대상으로 체험되었다. 하나님의 진실한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이 짊어지고 이를 극복한다는 사실 이야말로 하나님의 아픔임에 틀림없다’ (기타모리, 186-187쪽).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이지 결코 아프신 것이 아니다’ . 참으로 하나님이 아프신 것은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그가 사랑하려 하실 때이다’ (기타모리, 199쪽). 열의로 가득찬 기타모리의 논의에는 ‘하나님의 아픔’ 이란 개념을 종교개혁신학의 정통한 하나님 이해의 후속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신학은 결국 신관 (神觀) 에 귀착한다’ 는 문장에 이어 고대 신조를 만들어낸 그리스·로마적 교회의 신관, 게르만적 정신·신학의 신관에 대해 논평한 후 비극을 수용한 문학 속에서 보여지는 일본 ‘국민 (國人)’ 의 ‘마음’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기타모리가 그리스·로마나 게르만과 함께 일본 ‘국민 (國人)’ 의 ‘마음’ 이 정통을 짊어질 수 있는 신관을 만들어낼 가능성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신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논의하는 기타모리가 루터의 하나님의 진노의 이해에 대해 오래도록 주장

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위치시키고 더욱이 논의의 중심에서 루터 자신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의 체험을 ‘그의 내적 발전의 출발점’ (기타모리, 186쪽)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기타모리는 어떤 실존적 체험이 성서에 기초하면서 특정의 신론을 만들어낸 계기로 작용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일본의 구체적 실존적 경험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주제로한 유효한 신관이 탄생될 것을 기대하며 기획(企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신관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실존적 경험의 내용은 기타모리에 의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짚어보면 그의 논의는 다소 복잡해집니다. 기타모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며 그렇다고 ‘정신’은 더더욱 아니다’ (기타모리, 228쪽) 좀 더 깊고 구체적인 ‘일본의 마음’이며, 그것은 서민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연극, 특히 그 비극 속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타모리, 229쪽). 이 일본의 마음이 그리스적 정신이나 게르만적 정신을 뛰어넘어 그것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야기될 때 일본이 신론을 만들어내는 계기는 김교수가 논했듯이 추상적이면서 그 시대의 사상적 조류로 자리매김된 ‘일본적 심미주의’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기타모리는 보다 실존적인 아픔의 차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모리가 ‘타자를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 자기를 괴롭히고 죽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고 죽게 하는’ 데서 ‘통곡’하는 일본 서민의 ‘츠라사(つらさ)’를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기타모리 231쪽, 229쪽 및 235쪽도 참조),… ‘오늘날은 “죽음의 시대”이자 “아픔의 시대”이다. 내 눈에는 오늘의 세계가 넓은 하늘 아래 가로놓여 있지 않고, 아픔 아래에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비친다’고 기술할 때 (기타모리 233쪽), 전쟁과 죽음의 시대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 간접적 아픔의 실존적 경험이 기타모리 신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일본적 심미주의’라는 ‘감성적 인식론’의 영향을 둘러싼 김교수의 통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쟁의 시대에서 자신이나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과 죽음이 강렬한 실존적 경험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할지라도 기타모리에게 이 죽음과 아픔의 간접적 경험은 ‘일본적 심미주의’라는 필터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 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 비극문학의 핵심인 ‘츠라사(つらさ)’야말로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의 아픔’에 가장 깊이 호응한다’고까지 단언한 (기타모리 252-253쪽) 기타모리에게

있어 그 신관이 김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의 일본의 심미적 인간 이해’의 ‘감성적 인식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신학적 강점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타모리의 하나님의 아픔 분석의 기반’이 성서와 기존 신학 전통에 있지 않고, ‘일본의 인간 이해에 있다’는 김교수의 지적은 진정 예리한 통찰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

김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란 아픔의 시대에 기타모리 신학의 가능성에 언급하면서도 그 한계로서 ‘실질적으로 그 아픔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측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김교수도 소개한 ‘그의 추상화된 아픔에는 일본의 국가주의에 의한 동아시아 인민들의 고통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정당하고 정확한 기타모리 비판과도 중첩됩니다. 여기서 김교수가 지적한 기타모리의 ‘일종의 자문화 중심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김교수는 ‘모든 학문적 주장 안에는 일종의 자문화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모리의 그런 성질도 일본인을 독자로 염두에 둔 점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김교수가 설득력 있게 논했듯이 기타모리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반으로 ‘일본적 심미주의’에 의한 인간 이해와 그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숨겨진 일본 이해가 기타모리 논의의 저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타모리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의 서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픔의 경험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죄로서 성립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나 괴로움 외에는 애틋할 수 없으며’, ‘이 아픔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이며 혈연적이며 에로스적’이기 때문이다. (기타모리 84쪽). 즉 같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기술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의 고통과 죽음의 아픔은 애초에 그 자체가 죄로 간주된다는 전제하에 먼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문학에서 일본 서민의 마음과 통곡을 압목적으로 그 자신이 속한 동시대 서민의 아픔으로 바라봤다고 했을 때 일본인 동포의 죽음이나 고통으로밖에 아파할 수 없는 자신과 일본에게서 기타모리는 구체될 수 없는 죄를 보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자신의 아픔 너머에 어렴풋이 비치는 형태로 동포 이외의 사람들의 아픔이 기타모리에게는 의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타모리는 이

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증거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이 되어야만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구하기에 이른다’ (기타모리, 103쪽) 기타모리 신학의 핵심과 출발점은 ‘인간의 아픔’이며 ‘보다 특정하면 일본 고통의 실존’이라는 김교수의 정곡을 찌르는 해석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용서인 하나님의 아픔,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감싸는 하나님의 아픔만으로만 해결된다는 기타모리가 생각한 큰 아픔으로 일본 서민을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구한다는, 그 기타모리에게는 일본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고 보면 어떨까 합니다. 기타모리는 ‘츠라사 (つらさ)’를 수용하는 ‘일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픔에 더욱 깊이 호응하는 독자적인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기대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독자성에 의미를 주고 있는 동시대 일본의 죄라는 별도의 독자적인 현실에 대한 자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타모리의 ‘자문화 중심성’은 한편으로 일본의 죄에 대한 자각과 다른 한편으로 아픔을 수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는 양의적 (兩義的)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향한 일본의 죄를 ‘기타모리에게는 당시의 일본인이 진정으로 감수해 얻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형태의 자국 중심성’입니다.

단 위와 같은 논점은 그 가능성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 기타모리 자신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기타모리는 일본의 구체적인 죄의 고백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고백의 결여는 기타모리에게 있어서 ‘아픔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측면’에 대한 ‘침묵’과 깊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주의에 의한 동아시아 인민의 고통’에 대한 결여라는 비판은 이 기타모리의 결여와 침묵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김교수는 폴 리콤프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악과 고통의 구조의 문제에는 이성애에 의한 이해의 차원만이 아니라 행위와 감정의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마주한 기타모리 신학의 인간론이, 아픔의 문제는 감정의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리콤프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감염증과 전쟁이 가져온 다양하고 큰 고난의 위협과 불안에 따른 아픔은 일본도 한국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타모리가 주장한 ‘일본적 심미주의’의 감성적 인식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통의 아픔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모리가 파악하지 못한 악과 고통의 구조에 대한 실질적 행위를 수반하는 접근의 차원도 지금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정 김교수가 밝혔듯이 기타모리 신학이 시사하는 아픔에 있어서의 감성적 인간론을 토대로 우리는 ‘저항과 정의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아픔을 일으키는 악과 고통의 구조에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교수님의 깊은 통찰로 이뤄진 논고를 통해, 기타모리 신학의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이 현대에 들어 개척된 것에 감사드리며 졸고를 마치고자 합니다.